전남 SOC 르네상스…환태평양 교통 중심지 도약

철도·도로 등 9조750억 규모
국가계획에 핵심사업 대거 반영
기간 내 준공토록 예산 확보 집중

전남도가 심혈을 기울인 SOC 사업이 올해 국가계획에 역대 최대 규모로 반영돼 전남이 환태평양 교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철도 분야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전라선 고속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달빛고속철도 등 3개 노선 9조750억원이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

기존 전라선은 굴곡 구간이 신설·개량되면 호남선, 경부선과 같이 시속 350㎞로 달릴 수 있어 서울에서 여수까지 당초 2시간 40분대에서 34분이 단축된 2시간1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광주지하철 1호선 상무역을 시작으로 나주역을 이어 시도민의 이동이 편리해진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 전남·북, 경남·북, 대구를 잇는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으로, 신남부경제권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전망이다.

광주송정-무안국제공항-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주-광양 간 경전선 철도, 보성-임성리 간 철도도 2023년 개통 예정이다. 특히 보성-임성리 철도사업에 이어 광주송정-보성-순천 경전선 철도의 '보성-순천' 구간이 완료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20분대 생활권이 돼 지역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한발 더 나아가 서울-제주 고속철도와 목포와 군산을 잇는 서해안 고속철도, 달빛내륙철도의 영광 연장, 광주-화순 광역철도를 장래 국가계획에 반영해 환황해권 국가철도망을 완성하겠다는 청사진도 구상하고 있다.

도로 분야에선 2000년 국도 77호선이 지정된 이후 20년 만에 고흥-완도, 고흥 봉래 등 2개 노선이 국도로 승격됐다. 고흥-완도 구간 사업은 총연장 42.4㎞ 중 미개설 구간인 고금도-거금도 27.4㎞에 총 9008억원을 투입, 해상교량 5개를 잇는다. 내륙으로 2시간 이상이 걸리던 거리를 30분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광주-완도 2단계(강진-완도), 광주3순환(금천-화순) 구간 사업비 총 2조7834억 원이 반영됐다. 광주-완도 2단계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광주에서 강진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강진에서 완도까지 연장한다.

광주3순환(금천-화순)은 광주·호남 대도시권역의 순환망을 완성해 도심권 교통 혼잡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비금-암태 ▲고흥 영남-포두 ▲신안 암태 수곡-신석 ▲완도 고금 청용-상정 ▲무안 현경-해제 ▲장흥 유치-영암 금정 ▲장성 동화-서삼 ▲나주 금천-화순 도암 ▲담양 고서-창평 등 10지구 1조7859억 원 규모 신설·개량 사업을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도로 분야 국가계획 반영으로 물류 수송능력 향상과 도로 이용자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 분야에선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육성하고, 여수공항은 취항 노선을 확대한다. 무안국제공항은 354억원을 들여 미주, 유럽 등 국제노선 대형 항공기 취항을 위해 활주로를 2800m에서 3160m로 360m 연장한다.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도 추진, 408억원을 투입해 여객청사 리모델링, 주차장 증설, 기타 시설 확충을 올해 완료할 계획이다.

여수공항도 취항 노선 확대, 주차장 증설 등 인프라 확충으로 전남 동부권 관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잦은 선박 결항으로 고충을 겪는 섬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흑산공항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광주-완도 2단계(강진-완도), 광주3순환(금천-화순) 구간 사업비 총 2조7834억원이 반영되는 등 전남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완도 2단계 사업 현장.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도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만큼, 계획기간 내 준공되도록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전남 SOC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해상풍력으로 신산업 생태계 구축 속도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
아시아·태평양 진출 거점 육성

전남도는 미래 먹거리 확보와 신산업 생태계 구축 토대가 될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주민 수용성 확보와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이를 뒷받침할 관련 제도 개선 등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섰으며, 올해는 상반기 첫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남 해상풍력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상생이 핵심인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이다. 전남도는 사업 성패가 달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과 발전수익을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수산업과 공존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중이다.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익 공유와 수산업 공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체계적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으며, 목포신항 배후단지 등 업종별 산단 조성을 통해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해상풍력을 통해 기존 지역산업을 대전환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사업 진출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 12월 국내 해상풍력 핵심 기자재업체 9개사와, 지난해 6월 세계 1위 터빈사 베스타스와 각각 업무협약을 했다.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수준의 부품 공급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해상풍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습지보호지역 내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습지보전법 시행령'과 'REC 가중치 상향 고시'가 개정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5~6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이 2년 10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집적화 단지' 지정도 최우선 과제 삼았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올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신안 해상풍력 1단계 사업 집적화단지는 상반기 중 신청을 완료로 역점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광융합산업 매출 3조원 돌파

지난해 대비 15.7% 상승

광주 광융합산업 매출액이 3조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0년 광주 광융합산업 매출액은 3조 14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했다. 고용 인원도 8128명으로 전년 대비 1.0%, 기업 수도 305개로 전년 대비 2.7% 늘었다.

특히 100억원 이상 매출액을 달성한 기업 29곳, 코스닥·코넥스 상장 기업 6곳, '월드클래스 300' 기업 2곳 등의 성과를 냈다. 체온측정 적외선 카메라·광센서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코로나19 관련 기업 매출액도 크게 증가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융합산업은 2000년부터 광주 전략산업으로 육성,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지역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핵심 부품 기술 개발, 육성 전략 수립, 조례 개정, 전문연구소(한국광기술원) 및 진흥전담기관(한국광산업진흥회) 유치 등 광융합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공지능도시의 기반이 되는 광통신·광소자 기술을 고도화하고 시 전략산업인 자동차·의료산업 등과 연계한 산업 육성으로 광융합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국가 백신산업 중심으로 부상

화순백신특구, 국가사업 확보
첨복단지 지정 대선공약 추진

전남도가 미래 성장 동력인 백신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신규 연구기반시설 확충,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확보, 관련 기업 유치 노력으로 화순백신산업특구의 '국가 백신산업 중심지'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순백신산업특구는 국내 유일의 백신 특화 특구다. 지난 2010년 특구 지정 이후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연구개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비임상), 화순전남대병원(임상), 미생물실증지원센터(위탁생산), GC녹십자(대량생산) 등 17개 전문 지원기관과 31개 기업이 입주했다.

백신·의약품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갖췄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오는 2026년까지 총 252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랩 조성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 ▲치료백신 세포치료제 상용화 연계 고도화 사업 등 5건의 신규사업 추진에 올해 국비 200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국가 면역치료플랫폼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첨단 정밀의료 산업화플랫폼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원센터 구축 등 계속사업 6건을 위한 국비 270억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특히 백신 개발에 필요한 전주기 기술과 백신 제품화를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올해 9월 개관 목표로 건립 중이다. 세계 공통 백신 규제 허들을 넘을 해외 인증 전문인력 교육시설과 백신 개발기업에 세포주를 공급하는 '국가 셀뱅크' 등 센터 기능 확대 사업을 위한 국비 436억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모더나, 화이자와 같이 차세대 백신으로 주목받는 m-RNA 방식의 백신 생산시설 'm-RNA 백신 실증지원 시설'도 국내 최초로 구축해 국내 백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남의 풍부한 바이오 치유자원과 메디컬 자원을 융·복합해 백신·면역질환에 특화한 국가 거점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국가 첨단 의료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면역치료 중심 첨단의료 산업의 기틀을 닦아왔다"며 "대한민국이 5대 백신 강국으로 도약하고, 전남도가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의 중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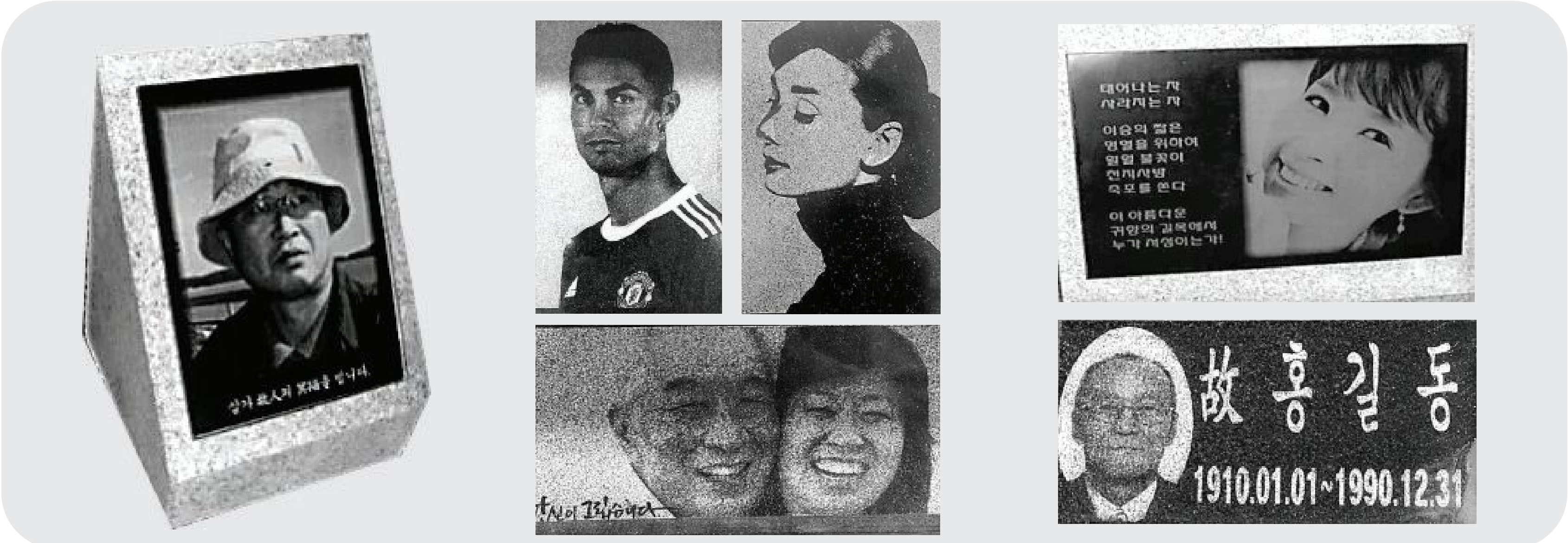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나는 떠나고, 내가 살던 세상의 흔적을
오석의 그리고 싶다

〈오석의 대표적 장점〉
영구적 중량감 아득함 선 불변함

〈주 사용처〉
문패, 준공성, 식수석, 묘지용 와비,
납골당 수목장 표지석, 인테리어 돌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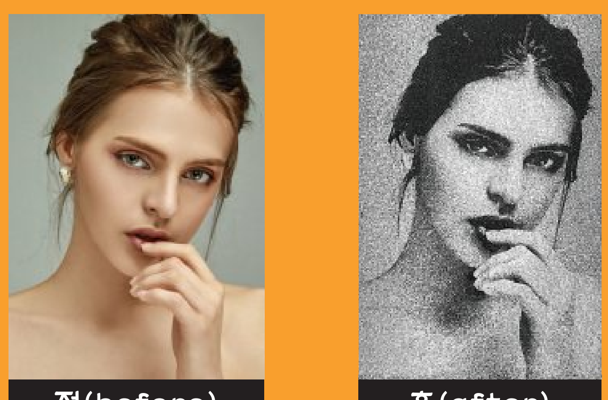
- 주요제작사이즈 -
1. 100×200×20
2. 200×200×20
3. 300×200×50
4. 400×300×20
(가로×세로×높이)
기타사이즈는 문의



[오석]의 특성
경도, 강도가 좋은 오석은 화산석, 화강암보다 더 진귀하게 여겨왔고
왕가나, 부호의 대명사였기에 비석, 표석, 포석, 조각석 이외 많은
자재에 고급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 돌액자〉
아크릴, 유리등 다른물질에 인쇄 후 부착

〈돌 자체에 각인〉
(오랜시간 변함이 없음)


전(before) 후(after)

제이와이석재
문의전화 | 062)464-3466
*오석에 직접 각인하는 작업 특성상 사진과 똑같은 퀄리티는 불가능하니 이점 감안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